

송유관 유류절도 예방 “전전공공”

정유기업, 고유가에 절도사건 잇따라 ... 잠금장치 구간 좁혀 초동조치

1월9일 밤 울산시 북구지역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발생한 화재는 석유제품 절도단이 송유관에서 석유제품을 몰래 빼내려다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최근 몇년간 송유관을 대상으로 한 석유제품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울산지역 정유기업들이 방지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월10일 울산지역 정유기업들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어져있는 송유관은 사고가 난 울산-대구 88km 구간의 SK에너지 송유관 1개와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온산 S-Oil서 대구-추풍령-대전-천안-성남 439km, 전남 여천-곡성-전주-대전-천안-성남 461km 등 2개 남북송유관이 있다.

석유제품 절도는 대부분 송유관을 표적삼아 이루어지고 있다.

울산에서는 2007년 4월25일 남구 여천동 여천교 옆에 설치된 울산-대구간 연장 88km, 직경 30cm 크기의 SK에너지 대형 송유관에 2-3명으로 추정되는 전문 석유제품 절도단이 지름 1.5cm 가량의 구멍을 내고 도주하는 바람에 1시간 가량 경유 수백리터가 유출되면서 여천천 일대를 크게 오염시켰다.

최근 2-3년 사이 석유제품 가격이 크게 오르기 시작하면서 석유제품 절도 사건이 이어지자 SK에너지는 매일 2인 1조의 순찰조가 24시간 송유관을 순찰하며 감시, 석유제품 절도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있다.

탐지봉을 가지고 다니며 송유관이 매설된 부위를 탐지하면서 송유관의 소재와 다른 금속이 연결돼 있는지를 감지하고 있다.

송유관에 다른 금속이 연결돼 있으면 누군가 기름 절도를 시도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 송유관 자체에 압력 센스가 달려 있어 고압 상황의 석유제품이 세도 확인되지만 압력이 미미하면 감지가 어려운 단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SK에너지는 개인 주택이나 사유지 아래에 송유관이 매설돼 있으면 해당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홍보 전단지 등을 나눠주는 등 계도하고 있다.

홍보 전단지에는 땅을 파는 등 공사가 이루어질 때 회사와 매설된 송유관에 따른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석유제품을 절도하면 형사 처벌될 수 있고 철저한 신고도 당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대한송유관공사와 S-Oil도 SK에너지처럼 관리 대상 송유관을 순찰하고 탐지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석유제품 절도를 예방하고 있지만 정유기업의 대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리해야 할 송유관로가 광범위한 지역에 길게 매설돼 있기 때문에 심야에 몰래 기름을 훔친 뒤 흠을 덮으면 범행현장을 찾을 수 없고 개인 주택과 사유지 등에 대한 순찰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쉽지 않은 점 등이 가장 큰 애로점으로 꼽힌다.

울산시소방본부는 1월9일의 송유관 화재사고처럼 동일한 사고 발생시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석유제품 이송을 막는 송유관 잠금장치가 현재 10km 구간마다 있으나 거리를 좁혀 설치해 신속한 초동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정유기업에게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2007년 4월 석유제품 절도사건으로 파손된 송유관을 복구하는데 2억-3억원이 소요된 것처럼 정유기업은 이번 사고에서도 송유관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투입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10>